

■ 법률 칼럼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적정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 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 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얼리 디시전' 카드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가을학기 얼리(Early)전형 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고교 시니어들이 많을 것이다. 참고로 주요 연구중심 대학들의 얼리 마감은 11월 1일이고, 주요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의 마감은 11월 15일이다.

얼리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몇 가지 조기전형 방식 중에서 구속력이 있는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ED)으로 지원할지 구속력이 없는 얼리 액션(Early Action, EA)을 택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얼리 액션은 합격하더라도 등록의 의무는 없으며, 얼리 디시전은 합격할 경우 반드시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만 하는 전형이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대학의 EA 제도는 195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백 개의 대학들은 신입생으로 어떤 학생을 합격시키면 좋을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 이익이 크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구속력이 있는 ED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치열한 입시 과정을 겪는 지원자들에게 ED는 대학입시 게임에서 거대하면서 유혹적인 요소이자, 'ED 카드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원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에게 '리치 스쿨' 이거나 그보다 살짝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할 경우, ED보다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은 없다. 일반적으로 ED를 시행하는 대학들을 살펴보면 ED합격률은 정시지원 합격률보다 높다.

예를 들어 2020년 가을학기 입시에서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대학은 ED 지



원자 중 21%를 합격 시켰다. 또한 듀크대는 17%, 밴더빌트대는 18%를 합격 시켰다.

이에 비해 이들 3개 대학의 정시지원 합격률은 다트머스 4.5%, 듀크4.2%, 밴더빌트 5.3%에 불과했다.

이처럼 ED합격률이 높은 것은 명문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우수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ED처럼 구속력이 있는 입시전형으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완벽한 ED 대학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 ED 대학을 고르는 열쇠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내가 정말로 진학하고 싶은 대학이어야 한다. 구속력이 있으므로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합격한 후 다른 대학에 미련이 생길 것 같다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합격할 경우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ED는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아보고 나서 내가 대학에 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한 뒤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옵션이 없다.

셋째, ED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고, 그 대학의ED의 합격률이 정시지원 합격률보다 높다고 해도 합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타진해야 한다. 나의 성적과 모든 조건에 비해 현실적으로 들어가 어려운 리치 스쿨은 ED를 통해서도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사진=shutterstock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